시즌5

제3차

| 국어는 이감 |

이감 국어 모의고사

예비평가 지문 분석

이감

[2021학년도 시즌5 제3차 예비평가 지문 분석]

[16~21] 사회-기술 : 스마트 계약의 원리와 법적 논란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법학 - 민법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자, 매매 계약, 비전형 계약, 저작물 이용 계약, 계약, 의사 표시, 청약, 승낙, 약관, 계약의 해제

기술 - 컴퓨터과학 -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 계약, 전자 주소, 공개 키, 개인 키, 트랜잭션

*** (가) 지문 분석**

 # 문단1 : 디지털 콘텐츠

1) **디지털 콘텐츠**는 무한히 복제 가능하고 원본과 복제물의 품질이 동일하므로, 그 저작권을 보호하는 일이 쉽지 않다.
   ⇒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물리적 형태가 존재하지 않아서 원본과 복제물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심지어 복제 역시 무한히 가능하다. 한마디로 '비양심적인 구매자'가 10만 원에 원본을 구매하고 복제물을 10만 개 만들어서 1원씩에 팔아도 본전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그래서 **저작권자**는 처분할 권한까지 넘겨주는, 민법에 규정된 계약의 하나인 **매매 계약**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취급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양심적인 구매자'인지 '비양심적인 구매자'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구매자에게 처분할 권한까지 넘겨주는 '매매 계약'은 꺼려질 게다.
   [참조] 여기서는 '처분할 권한'의 의미가 딱히 와닿지 않았을 게다. '비양심적인 구매자가 악용하기 좋도록 모든 권한을 넘기는 것' 정도로 이해했으면 충분하다. 법학에서의 '처분'은 보통 해당 물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그 물건을 부수는 것,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전부 처분할 권한을 가진 사람의 마음대로라는 얘기다.
3) 대신 주로 민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비전형 계약**으로서 저작권법에 근거를 둔 **저작물 이용 계약**을 통해 이용 권한만을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다.
   ⇒ 저작권자는 민법에 근거한 '매매 계약' 대신 저작권법에 근거한 '저작물 이용 계약'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단다. '처분할 권한'보다 제한적인 '이용 권한'만을 넘기면 비양심적인 구매자의 무한한 복제를 그나마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일 게다.
4) 그런데 계약에 대한 불법 조작 가능성을 회피하고 저작권 침해도 방지하면서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쉽지 않다. 아울러 저작권자에게 정확한 수익 정산을 보증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근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계약'**이 떠오르고 있다.
   ⇒ '저작물 이용 계약'이 비양심적 구매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기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는 얘기다.
   [맥락 짚기] 따라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원리로 하는 '스마트 계약'이 대두되고 있단다. 앞으로는 '스마트 계약'의 원리와 그것이 어떻게 4)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하는지 파악하는 데에 집중해야겠다.

 # 문단2 : 계약과 '스마트 계약'

1)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내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로 성립하는 법률 행위이다.
   ⇒ 철수가 민수의 그림을 구매하려는 상황을 떠올려 보자. 계약은 철수의 의사만으로 성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구매하려는 철수의 의사 표시와 철수에게 판매하려는 민수의 의사 표시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맥락 짚기] 당연한 얘기지만 '스마트 계약' 역시 계약이다. 즉 스마트 계약도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한다.
2) **청약**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 표시이고 ……
   ⇒ "그 그림 내가 10만 원에 사면 안 될까?"는 철수의 청약이다.
3) …… **승낙**은 청약에 응하는 의사 표시로, ……
   ⇒ "그래 너한테 팔게"는 민수의 승낙이다.
4) …… 승낙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한다.
   ⇒ 중요하다.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루어지는 순간, 계약은 성립한다. 승낙의 의사 표시가 이루어지는 순간 철수와 민수 사이의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는 얘기다.
5) 계약에서 승낙자는 상품과 같은 목적물이나 콘텐츠를 보내야 하는 **'급부'**의 의무가 있으며 청약자는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반대급부'**의 의무가 있다.
   ⇒ 계약이 성립한 이상 승낙자인 민수는 그림을 철수에게 보내야 하는 '급부'의 의무가 있으며, 청약자인 철수는 10만 원을 민수에게 지불해야 하는 '반대급부'의 의무가 있다. 계약이 이행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계약의 성립>
청약 :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 표시
승낙 : 청약에 응하는 의사 표시
↓
<계약의 이행>
급부 : 승낙자의 목적물이나 콘텐츠 인도 의무
반대급부 : 청약자의 대금 지불 의무

6) 그런데 보통의 계약에서는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계약이 위변조되기도 쉽다.
   ⇒ 그렇겠다. 계약이 성립됐음에도 승낙자가 '급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청약자가 '반대급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
   [Rew] …… 문단1-4)에서도 언급한 대로 계약 자체가 위변조되기도 한단다. '저작물 이용 계약'만의 문제가 아닌 계약 일반의 문제였나 보다.
7) 이와 달리 스마트 계약은 청약과 동시에 전자 프로그램에 의해 승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
   ⇒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스마트 계약'에서는 승낙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승낙이 이루어진단다.
8) …… 그에 따른 급부와 반대급부도 전자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이행된다.
   ⇒ 마찬가지로 청약자와 승낙자의 의무 역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행된단다. 따라서 '스마트 계약'에서는 6)의 일반적인 계약처럼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일은 없을 게다.
9) 스마트 계약은 하나의 **블록**에 여러 계약들을 저장하고 이들 블록을 연결하여 다수가 공히(=모두) 동일한 **블록체인**을 보관해 두는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데, ……
   ⇒ 정보량의 밀도가 상당하다. 개별 블록에는 하나가 아닌 여러 계약들이 저장되어 있다. 철수와 민수의 계약은 물론, 영수와 민호의 계약도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다.
   ⇒ 이런 '블록'들을 사슬처럼 연결해 둔 것을 '블록체인'이라고 한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한 사람만 보관하고 있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블록체인을 보관하고 있단다.

10) …… 이로 인해 제3의 보증 기관 없이도 다수에 의해 계약이 보증되며 모든 블록체인을 전부 수정하지 않는 한 계약을 위변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 모두가 똑같은 블록체인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어떤 블록을 확인하면 어떤 계약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게다. 따라서 모두의 눈을 피해서 특정 계약의 내용을 위변조하는 것도 불가능할 게다.

[Rew] 따라서 저작권 이용 계약이 '스마트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문단1-4)에서 제기되었던 한계는 전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 문단3 : 스마트 계약의 법적 논란

1) 다만 스마트 계약을 법적 계약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다.

⇒ "나 때는 말이야! 계약은 종이에 서로 지장 찍어 가면서 하던 거야! 어디서 데이터 쪼가리로 계약을 한다고!" 수준의 철없는 논란은 분명 아닐 게다. 좀 더 읽어 보자.

2) 승낙자의 직접적인 의사 표시 없이도 승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

[Rew] 문단2-7)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이다.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스마트 계약'에서는 프로그램에 의해 승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3) …… 계약의 이행을 규정하는 **약관**은 사실상 프로그램의 코드 형태로 되어 있어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목] 이건 필자의 주장이 아니다. '스마트 계약을 법적 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의 주장이다.

⇒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부터 이행까지의 모든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작 계약의 당사자들이 이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당사자들이 실제로 알지도 못하는 계약이 어떻게 '법적 계약'이 될 수 있냐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4) 그러나 청약자가 클릭하여 거래 요청함에 따라 청약의 의사 표시가 발생하는 점, ……

[주목] 여기서부터는 반대로 '스마트 계약을 법적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의 주장이다.

⇒ '청약의 의사 표시'는 청약자의 '클릭'에 의해 이루어진다. 철수가 민수의 디지털 콘텐츠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 버튼을 '클릭'했다면 철수는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충분히 표시했다는 얘기다.

5) …… 당사자들의 의무가 그들의 소유물이나 화폐로 이행된다는 점, ……

⇒ 또한 '스마트 계약'이 성립했을 때 민수의 소유물은 자동적으로 철수에게 전달된다[→ 승낙자의 '급부'의 의무 이행]. 또한 대금의 지급은 철수가 소유한 화폐로 이루어진다[→ 청약자의 '반대급부'의 의무 이행].

6) …… 약관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승낙과 이에 따른 의무들이 자동 이행됨을 당사자들이 미리 알고 결과를 예측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적 계약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맞다. '클릭'을 통해 '청약의 의사 표시'를 발생시켰을 때, 자동적으로 '승낙의 의사 표시'가 발생할 것이고, 콘텐츠가 청약자인 자신에게 인도될 것임을 철수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같은 논리로 역시 자신의 화폐가 승낙자인 민수에게 지불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철수와 민수가 실제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것도 맞지만,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다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 문단4 : 스마트 계약의 한계

1) 한편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는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계약의 해제**를 보장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계약'에도 한계가 있단다.

2) 예컨대 음원을 구입하는 스마트 계약을 체결했으나 인터넷상의 장애로 음원이 전송되어 오지 않았다고 하자. 그럴 때 청약자는 계약 성립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권리를 지닌다.

⇒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은 만큼, 청약자는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더 읽어 봐야겠다.

[참조] 이때 '계약의 해제'는 양측의 의사 표시가 맞아떨어져야 하는 계약과 달리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챙겨 두자. 정당한 사유만 있다면 청약자든, 승낙자든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제란 유효한 계약을 소멸하고 계약 이전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 한마디로 '계약의 해제'는 성립한 계약을 아예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4) 그런데 블록체인에서는 다수의 블록체인 모두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서 개별 계약의 삭제나 수정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주목]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다. 문단2-10)에서 설명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블록체인을 보관하기 때문에 계약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것도 맞지만, 똑같은 이유로 계약의 해제 역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다.

5) 그래서 스마트 계약의 거래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대로라면 계약이 온전히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청약자/승낙자를 보호할 방안이 미비해 보인다. 기술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스마트 계약'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 (나) 지문 분석**

 # 문단1 : 스마트 계약

1) 스마트 계약에는 중앙 서버의 통제 없이 참여자들의 동의를 거쳐 공인된 계약 정보들을 블록에 저장해 두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Rew] (가)의 문단2-10)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이다. 다만 '참여자들의 동의를 거쳐'는 새로운 내용이니 챙겨 둬야겠다.

2) 이용자 A가 특정 저작자의 음원 B에 대해 스마트 계약의 형태로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고 하자.

[맥락 짚기] (가)에서는 스마트 계약의 과정을 법학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면, (나)에서는 공학의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이용자 A는 (가)에서의 '청약자'를, 저작자는 '승낙자'를 가리킨다는 사실 역시 파악할 수 있어야 겠다.

3) A와 같은 블록체인 시스템의 참여자는 고유한 **전자 주소**, 그리고 **개인 키**와 **공개 키**의 쌍을 지닌다.

⇒ 그렇단다. '고유한 전자 주소'란 전자 주소를 통해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개인 키는 자신[→ 이용자 A]만이 보유하고 공개 키는 외부에 공개하는데, 개인 키로 암호화된 정보는 그 쌍인 공개 키로만 해독될 수 있다.

⇒ 한마디로 이용자 A가 '개인 키'로 암호화한 정보를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해독하려면 반드시 '공개 키'가 필요하다.

 # 문단2 : 스마트 계약의 과정

1) A는 먼저 거래 요청을 한다. 거래 요청은 '1코인을 지불하고 B에 대한 이용 계약을 체결함'과 같은 거래 내역과, 개인 키로 암호화한 거래 내역, 그리고 공개 키를 묶어 자신의 전자 주소에서, 시스템에 참여한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개별 컴퓨터인 인근 노드들로 전송하는 것에 해당한다.

[맥락 짚기] 'A의 거래 요청'은 (가)에서 '청약자의 의사 표시'로 이해해도 무방하겠다. '거래 내역'의 내용 때문에 계약의 이행까지도 완료된 것이라고 오해하지는 말자. 어디까지나 문단1-2)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이었지, 이미 체결한 상황이 아니다.

⇒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이용자 A는 다른 참여자들인 인근 '노드'에게 '①거래 내역, ②개인 키로 암호화한 거래 내역, ③공개 키'를 묶어서 전송한다.

2) 이를 받은 노드들은 해당 전자 주소를 검증하면서[→ A가 전송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암호화된 거래 내역을 공개 키로 해독하여 그 결과가 전송된 거래 내역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 노드들은 전자 주소가 A의 것인지를 검증하고, 또한 ②를 ③으로 해독하여 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3) 일정 수 이상의 노드들이 이를 확인하면 거래가 승인되는데, ……

⇒ 2)의 확인이 [모든 노드가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노드에 의해 완료되면 해당 거래가 승인된다.

[Rew] 문단1-1)에서 설명한 '참여자들의 동의를 거쳐'는 이를 가리키는 것이겠다.

4) …… 이 승인이 곧 스마트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는 트랜잭션이다.

⇒ 그 결과 '스마트 계약의 체결'이 성립되는데, 이를 트랜잭션이라 한단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스마트 계약의 체결>
1) A의 거래 요청 : ①, ②, ③을 묶어서 인근 노드들로 전송
2) 검증 : 'A의 거래 요청'을 일정 수 이상의 노드들이 검증
3) 거래 승인 : 스마트 계약의 체결 = 트랜잭션

 # 문단3 : 트랜잭션

1) 트랜잭션은 청약과 승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태와 같다.

[주목] 중요하다. (가)의 문단2-7)에서 설명한 내용임을 떠올려 보자. '스마트 계약'에서는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곧 '트랜잭션'인 게다. 보나마나 앞으로는 '계약의 이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게다.

2) 이어 여러 계약들이 하나의 블록에 저장되고 블록은 시스템의 모든 노드들에 전송되어 사슬처럼 시간 순서대로 연결된다[→ 블록체인]. 그 결과 동일한 블록체인이 모든 노드들에 공통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A에게 B의 이용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는 언제든 어떠한 블록체인을 조회하든지 확인할 수 있다.

[Rew] (가)의 문단2-9)에서 설명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었다.

3) 이 시스템에서는 트랜잭션이 발생되는 즉시 A의 전자 주소에서 전자 화폐 형태로 이용 대금이 빠져나가 저작권자에게 전송[→ 청약자의 '반대급부'의 이행]되며, 음원 B가 저작권자에게서 A의 전자 주소로 전송[→ 승낙자의 '급부' 이행]된다.

⇒ '계약의 이행'에 대한 설명이다. 이 또한 새롭지 않다. 트랜잭션[→ 스마트 계약의 체결]이 발생되면 즉시 계약의 이행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다.

[맥락 짚기] '스마트 계약'과 관련된 (가)의 설명과 (나)의 설명을 합치면 다음과 같겠다.

<스마트 계약의 체결>
1) A의 거래 요청 : ①, ②, ③을 묶어서 인근 노드들로 전송
2) 검증 : 'A의 거래 요청'을 일정 수 이상의 노드들이 검증
3) 거래 승인 : 스마트 계약의 체결 = 트랜잭션

↓

<계약의 이행>
급부 : 저작권자에게서 음원 B가 A의 전자 주소로 전송
반대급부 : A의 전자 주소에서 전자 화폐가 저작권자에게 전송

 # 문단4 : 스마트 계약의 보안성

동일한 블록체인들이 모든 노드들에 공히 저장되는 구조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은 뛰어난 보안성을 지닌다. 다수의 블록체인을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며, 특정 블록체인에서 블록을 조작한다고 해도 다른 노드들을 통해 그것이 조작된 것임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 다수의 블록체인을 동일하게 변경하기 힘들기 때문에, 계약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뛰어난 보안성'을 지닐 수 있지만 ……

[맥락 짚기] …… 마찬가지로 다수의 블록체인을 동일하게 변경하기 힘들기 때문에 모든 블록체인에서 개별 계약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결국 (가)의 문단4-4)에서 지적한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는 여전한 셈이다. 기술적 보완이 불가능한 만큼 아무래도 이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다.

이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2~26] 고전시가 : (가) 작자 미상, 「춘면곡」

*** 수록 지문 평가**

연애 이야기이고, 이해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12가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의 하나로,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작품이다.

*** 수록 지문 분석**

 # 토막1 : 봄잠에서 깬 후 간 야유원에서 임을 만나다

춘면(春眠)을 느즉 깨어 죽창(竹窓)을 반개(半開)하니
→ 봄잠을 늦게 깨어 대나무 창을 반쯤 여니
⇒ 봄잠 즉 춘면이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작품 제목인 '춘면곡'이 이 구절에서 왔다.

뜰의 꽃은 불붙은 듯한데 가는 나비 머무는 듯
→ 뜰의 꽃은 불붙은 것처럼 붉은데 지나가던 나비가 돌아와 꽃 위에 머무는 듯하다. 아름답다는 얘기다.

물가 버들은 우거져서 성긴 내를 띠웠세라
→ 물가에는 버드나무가 우거지고 안개가 드문드문 떠 있구나
⇒ 뜰 안의 모습을 바라본 후 멀리 물가 경치를 바라보고 있다.

창전(窓前)의 덜 고인 술을 이삼 배(盃) 먹은 후에
→ 창 앞에 덜 익은 술을 두세 잔 먹은 후에

호탕한 미친 흥을 부질없이 자아내어
⇒ '부질없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 화자의 이후 행동이 다분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거다.

백마 금편(白馬金鞭, 흰말과 금빛 채찍. 나들이의 호화로운 차림새를 뜻함)으로 야유원(冶遊園)을 찾아가니
→ 백마를 타고 금빛 채찍을 든 차림으로 흥청망청 놀 수 있는 곳을 찾아가니
⇒ '야유'는 방탕하게 노는 것을 말한다. 한껏 차려 입고 술집으로 갔다는 말이다.

화향(花香, 꽃향기)은 옷에 배고 월색(月色, 달빛)은 뜰 가득한데
⇒ '야유원'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암시하는 거다. '꽃향기'가 옷에 밸 정도로 향기가 '진동(振動)하는' 곳이라는 거다.

광객(狂客)인 듯 취객(醉客)인 듯 흥에 겨워 머무는 듯
→ 미친 사람인 듯 술에 취한 사람인 듯 흥에 겨워 머무는 듯
⇒ 흥에 겨운 모습이 마치 미친 사람, 취한 사람 같다는 말이다.

서성이고 두리번거려 유정(有情)히 섰노라니
⇒ 화자는 '야유원'을 찾아와 곧바로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직은 바깥에서 조금 머뭇거리며 주변을 배회하며 살피고 있다. 오긴 왔지만, 나름 멋쩍고 쑥스러워 그러는 거겠다.

취와주란(翠瓦朱欄) 높은 집에 녹의홍상 일 미인(一美人)이
→ 푸른 기와 붉은 난간이 있는 높은 집에 녹색 저고리 붉은 치마를 입은 미인 한 사람이
⇒ 높은 집의 색깔과 미인이 입은 옷 색깔이 같다. 시각적 심상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여기부터 미인과의 만남이 시작된다.

사창(紗窓, 비단으로 바른 창)을 반개하고 옥안(玉顔, 잘 생기고 환한 얼굴)을 잠간 들어
→ [미인이 나를 보고] 비단으로 바른 창을 반쯤 열고 아름다운 얼굴을 잠깐 들어

웃는 듯 반기는 듯 교태(= 아양을 부리는 태도)하며 머무는 듯
⇒ 막상 '야유원'을 찾아왔음에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던 화자가 '일미인'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다.

그윽한 눈길 보내오고 거문고 빗기(= 비스듬히) 안아
맑은 노래 일곡(一曲)으로 춘흥(春興, 봄철에 절로 일어나는 흥과 운치)을 자아내니
⇒ 그 미인이 이제는 나를 위해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다.

운우(雲雨) 양대(陽臺) 위에 초몽(楚夢)이 다정하다
→ 예전 초나라 회왕이 무산신녀를 만나 사랑을 나눈 이야기처럼 지금 이 미인과의 만남이 다정하게 느껴진다.
⇒ 초(楚)나라 회왕(懷王)이 양대에서 구름과 비를 관장하는 무산신녀(巫山神女)를 만나 사랑을 나누고 헤어진 후 그것이 꿈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회왕이 무산신녀와 하룻밤을 보낸 옛 이야기처럼, 화자도 미인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이야기다.

사랑도 그지없고 연분(緣分)도 깊을시고
이 사랑 이 연분을 비할 데도 전혀 없다
⇒ 정말 절절한 사랑이라는 거다. 겨우 하룻밤 만난 사이인데 좀 요란을 떠는 거 같긴 하지만.

두 손목 마주 잡고 평생을 언약함이
너는 죽어 꽃이 되고 나는 죽어 나비 되어
⇒ 살아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함께하자는 거다. 죽어서 '꽃'과 '나비'가 되자는 것은 죽어서도 헤어지지 말자는 뜻과 같다.

청춘(靑春)이 다하도록 떠나 살지 말자더니
⇒ 잠시라도 헤어져 있지 말자는 거다.

인간(人間, 사람 사는 세상)에 일이 많고 조물(造物, 조물주)조차 시샘하여
갓 사귄 정(情) 미흡한데 애달프게 이별이라
→ 새로운 정을 펴지 못하고 애달프게 이별이라.
⇒ 사실 화자가 임을 만난 건 하루밖에 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밤에 처음 만나 함께 밤을 보낸 사이이고, 화자는 지금까지 임과 같이 있다가 이제야 막 집으로 돌아가려는 거다. 그런데도 '이별' 운운하면서 그 원인으로 '인간에 일이 많고'나 '조물조차 시샘하여'를 드는 건 한~참 '오버'인 거다.

(중략)

 # 토막2 : 임을 만날 수 없는 현실이 더욱 괴롭다

공산 야월(空山夜月, 적막한 산 달빛 아래)에 두견이 슬피 울 제
슬프다 저 새소리 내 말같이 불여귀(不如歸)라
⇒ 화자는 두견새 울음소리를 '[임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말로 듣고는 그게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여긴다. '불여귀(不如歸)'는 두견새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들린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삼경(三更, 밤 11시~새벽 1시)에 못 든 잠을 사경(= 새벽 1시~새벽 3시) 말에 비로소 들어
⇒ 임 생각하느라 잠을 못 이루다가 늦게야 잠에 든 거다.

상사(相思)하던 우리 님을 꿈 가운데 해후하니
천수만한(千愁萬恨, 이것저것 슬퍼하고 원망함. 또는 그런 슬픔과 한) 못다 일러 일장 호접(一場胡蝶, 한바탕의 헛된 꿈) 흩어지니
아리따운 옥빈홍안(玉鬢紅顔, 옥 같은 귀밑머리와 붉은 얼굴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이르는 말) 곁에 얼핏 앉았는 듯
→ 아리따운 고운 얼굴 곁에 얼핏 앉았는 듯
어화 황홀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
⇒ 꿈이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다.

잠 못 들고 한숨지으며 바삐 일어 바라보니
운산(雲山)은 첩첩하여 천리몽(千里夢, 천리에 아득한 꿈)을 가려 있고
→ 구름 낀 산은 겹겹하여 천리에 아득한 꿈을 가리고 있고
밝은 달은 창창(蒼蒼)하여 두 마음을 비추었다
가약(佳約)은 묘연하고 세월은 여류(如流)하여
→ 좋은 기약 막혀 있고 [떨어져 지내는] 세월이 길기도 길구나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엊그제 이월 꽃이 버들 곁에 붉었더니
→ 엊그제 꽃이 버드나무 곁에서 붉더니
그덧에 훌훌하여 낙엽 지는 소리 난다
→ 그사이에 시간이 훌훌 지나 낙엽 지는 소리가 난다.
⇒ 벌써 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뀐 거다.
새벽 서리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 울 제
반가운 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보니
⇒ 예전에 '기러기'는 '편지'나 '소식'을 전하는 새를 의미했다. 그래서 기러기 울음에 '님의 소식'을 떠올리는 거다.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이로다
⇒ 님의 소식은 오지 않고 아득한 구름만 보인다. 화자의 외로움이 더욱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7~31] 인문 : 이해와 설명에 대한 헴펠과 키처의 모델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인문 - 철학 - 과학 철학

헴펠, 포괄 법칙적 모델, 키처, 통합주의적 모델, 과학 활동, 설명, 이해, 법칙 진술, 설명항, 피설명항, 합리적 기대, 비대치성, 통합력, 도출 유형

*** 지문 분석**

 # 문단1 : 헴펠의 '포괄 법칙적 모델'의 설명

1) 흔히 **과학 활동**이란 현상에 대한 **'설명'**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행위라 여겨진다.

⇒ '과학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소개되고 있다. 과학 활동은 현상을 '설명'함으로써 세계를 '이해'하는 행위라 하니,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과학 활동의 목적이고,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이를 위한 수단이겠다.

2) 헴펠의 **'포괄 법칙적 모델'**에 따르면 어떤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은 **법칙 진술**을 포함한 진술들인 **설명항**으로부터 특정 현상을 기술하는 진술인 **피설명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목] 우선, '설명'에 대한 헴펠의 견해이다. 헴펠에 따르면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은 설명항에서 피설명항을 끌어내는 거다. 설명항은 법칙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피설명항은 특정한 현상을 기술한다고 하니, 설명항이 상대적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 진술이라면 피설명항은 보다 구체적인 진술이겠다.

3) 추가 매달린 줄의 길이와 진자 운동의 주기 간에 성립하는 법칙 [→ 법칙 진술], 그리고 줄의 길이가 얼마인지에 관한 진술로부터, 주기가 얼마인지에 관한 진술[→ 피설명항]을 도출하는 것이 바로 설명인 것이다.

⇒ '추가 매달린 줄의 길이'와 '진자 운동의 주기' 사이에는 법칙이 있다. 이러한 '법칙 진술'에 '줄의 길이'에 관한 진술을 더한 '설명항'을 통해, '진자 운동의 주기'도 알 수 있다. 이때 '진자 운동의 주기'에 관한 진술이 '피설명항'이다.

설명항		피설명항
법칙 진술 : 줄의 길이와 진자 운동 주기 간에 성립하는 법칙	→	진자 운동의 주기
줄의 길이		

4) 헴펠에 따르면 우리는 미래 사건을 예측할 때에 그렇듯 현상을 설명할 때에도 **합리적 기대**를 갖는데, 이것[→ 현상을 설명함으로써 갖게 된 합리적인 기대]이 곧 현상에 대한 이해이다.

[주목] '이해'에 대한 헴펠의 견해이다.

[Rew] 1)에서 현상에 대한 '설명'을 통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헴펠에 따르면 현상을 '설명'하면 '합리적 기대'를 갖게 된다고 하니 '합리적 기대'가 곧 '이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 문단2 : 헴펠의 '포괄 법칙적 모델'에 대한 비판

1) 그러나 기압계의 수치가 내려갈 때 비가 올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하여 기압계의 수치 변화를 통해 비가 오는 현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합리적 기대가 곧 이해인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 '기압계의 수치가 내려갔으니 비가 올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하게 되었다고 해서 어떤 원리로 비가 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합리적 기대 = 이해'인 것인 아니다. 이 점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거다.

2) 또한 헴펠의 모델은 설명이 지닌 특성인 **'비대칭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 헴펠의 '포괄 법칙적 모델'에 대한 또 다른 비판으로 '비대칭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설명이 지닌 특성이라는 '비대칭성'은 무슨 의미일까?

3) A.주기로부터 B.줄의 길이를 도출하는 것도 헴펠의 모델에서는 설명으로 간주하는데, 인과 관계를 고려하면 A.주기를 B.줄의 길이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줄이 바로 그 B.길이를 지니게 된 것을 A.주기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 헴펠은 B.길이에서 A.주기를 끌어내는 것이 설명이듯이, A.주기에서 B.길이를 끌어내는 것도 설명이라고 보았다. 'A.주기와 B.길이 간에 성립하는 법칙'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A.주기로부터 B.길이를 끌어내는 것도 계산상으로는 가능하다.

⇒ 그러나 인과 관계를 고려하면 특정한 줄이 특정 A.주기로 운동하는 것은 줄의 B.길이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반대로 지금 특정한 줄의 A.진동 주기가 이러하기 때문에 현재의 B.줄의 길이로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듯 한쪽이 다른 한쪽의 원인이 되지만 그 반대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을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 문단3 : 키처의 '통합주의적 모델'과 통합력

1) 헴펠의 모델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 근거하여 **키처**는 **'통합주의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 키처의 '통합주의적 모델'이 헴펠 모델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면, 키처의 모델은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2) 이는 개별 현상들에 관한 지식인 단편적 지식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곧 이해에 해당한다는 모델이다.

⇒ 키처가 생각한 이해는 현상들에 관한 단편적 지식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 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3) 이 모델에 따르면 특정 과학 이론에서 제시되는 어떤 설명 하나가 좋은 것이라면 그 이유는 설명 자체가 좋은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 과학 이론에서 제시되는 다른 설명들과 함께 체계를 이루어 단편적 지식들을 잘 통합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 '통합주의적 모델'에 따르면 하나의 '설명'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의 설명 자체만으로 놓고 '그 설명이 얼마나 좋은가?'가 아니라 다른 설명들과 함께 체계를 이루어 '얼마나 많은 단편적 지식들을 잘 통합하는가?'이다.

4) 이 모델에서는 특정 과학 이론이 얼마나 지식들을 잘 통합하는지를 나타내는 **'통합력'**을 중시하는데, 통합력은 이론을 통해 설명되는 현상이나 규칙성이 많을수록, 그리고 설명의 유형인 **도출 유형**의 개수가 적을수록 더 크다.

⇒ '통합주의적 모델'에서 설명을 평가하는 기준, 즉 얼마나 지식들을 잘 통합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통합력'이다.

이론을 통해 설명되는 현상, 규칙성↑ ⇨ 통합력↑
도출 유형의 개수↓ ⇨ 통합력↑

5) 뉴턴의 역학 이론은 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현상이나 조수 간만의 차가 발생하는 현상 등 많은 현상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므로 통합력이 크고,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만유인력의 법칙으로부터 도출한다는 점에서 도출 유형이 하나뿐이어서 통합력이 크다.

⇒ 뉴턴의 역학 이론은 수많은 현상들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하나의 도출 유형으로 설명할 있어서 통합력이 매우 크다.

 # 문단4 : 키처의 '통합주의적 모델'의 의의

1) 키처에 따르면 통합주의적 모델은 헴펠의 모델이 안고 있는 비대칭성의 문제에서 자유롭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Rew] 문단2-2)에서 헴펠 모델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비대칭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키처의 모델에서는 극복되었다는 거다.

2) 예컨대 키처의 모델에 따르면 줄의 길이에 관한 설명은 줄이 생산되고 잘리는 등 줄의 생산과 변화 과정만을 통해 도출하는 것이, 하나의 도출 유형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설명이다.

⇒ 키처에 따르면 어떤 줄의 길이가 1m인 것에 대한 최선의 설명은 줄이 어떤 길이로 생산된 후 1m 단위로 잘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설명은 모든 줄의 길이에 대한 설명이 된다. 줄의 길이가 xm인 그 길이로 잘렸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도출 유형만으로 모든 줄의 길이를 설명할 수 있으니 키처에게는 최선의 설명이다.

3) 그런데 헴펠의 모델을 따를 경우 주기로부터 줄의 길이를 도출하는 유형이 용인되고, 아울러 그저 바닥에 놓여 있는 또 다른 줄의 길이를 줄의 생산과 변화 과정을 통해 도출하는 유형도 필요하다.

[Rew] 헴펠의 모델을 따르게 되면 문단2-3)에서 나온 것처럼 '주기로부터 줄의 길이를 도출하는 것'도 설명으로 간주된다. 도출 유형이 하나 늘어난 거다. 문제는 이 설명으로는 진동하지 않는 줄의 길이를 설명할 수는 없으니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해진다. 즉 다른 도출 유형이 필요해지는 거다.

4) 주기로부터 줄의 길이를 도출하는, 인과에 어긋나는 도출 유형이나 굳이 필요하지 않은 도출 유형을 배제하고 하나의 도출 유형만으로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에도, 헴펠의 모델에 따른 설명은 비대칭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여러 도출 유형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에게 충분한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 헴펠이 모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언급되었다. 문단2-1)에서 언급된 것까지 포함하면 헴펠 모델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① 헴펠의 견해와 달리 '합리적 기대'가 곧 '이해'인 것은 아니다.
> ② 헴펠의 모델은 설명의 비대칭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즉 인과적으로 잘못된 것도 '설명'에 포함한다.
> ③ 헴펠의 모델은 불필요한 도출 유형을 만들어 낸다.

5) 키처의 모델은 과학자들이 왜 자연을 최대한 완전하게 기술하려 하면서도 그저 가정해야만 하는 법칙들의 수를 최대한 줄이고 통합적인 법칙을 찾으려 노력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 키처의 모델은 과학자들이 최소한의 도출 유형으로 자연을 설명하려 이유를 설명해 준다. 불필요한 도출 유형을 이끌어 내는 설명은 우리에게 세계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32~34] 고전소설 : 작자 미상, 「방한림전」

*** 수록 지문 평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장을 한 채 남자로 살던 방관주는 남자에게 종속된 삶이 싫어 혼인을 기피하던 영혜빙과 결혼을 한다. 조선 시대에 이런 내용의 소설이라니, 급진적이고 과감하다. 지문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니, 고전 소설 특유의 한문투 표현을 감안해 읽어 보자.

*** 수록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처럼 자란 방관주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 남장(男裝)으로 남자의 삶을 살다가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다.

 # 토막1 : 영 공의 막내딸 혜빙

영 공(公) 부부가 사윗감과 며느릿감을 애써 고르매, 위로 칠자 사녀(七子四女)가 모두 성혼(成婚)하고, 막내딸 혜빙 소저의 자는 묘주니 방년 십삼 세라. 용모와 재질(才質)이 형제들 중 출중하여, 용모를 말한즉 중추의 보름달이 하수(河水, 강이나 시내의 물)에 비친 듯하고 백련(白蓮, 흰 연꽃) 같은 귀밑과 희디흰 두 뺨은 희미한 도화(桃花, 복숭아꽃) 같고 앵두처럼 고운 입술은 단사(丹沙, 붉은색 염료)를 찍은 듯하고 밝은 별 같은 눈길과 가벼운 두 팔은 날아가는 봉황이 운산(雲山, 구름이 낀 먼 산)을 향하는 듯하고 가냘픈 허리는 고운 비단을 묶은 듯하더라. 기질은 가을 달 같고 성정은 동쪽에 뜬 맑고 차가운 달 같으며 그 마음은 철석 빙옥(鐵石氷玉, 철이나 돌의 단단함과 얼음이나 옥의 깨끗함) 같아 가벼이 흩날리는 홍진(紅塵,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이르는 말) 티끌에 얽매이지 않더라.

⇒ 한마디로 영 공의 막내딸 혜빙의 미모와 성품이 뛰어났다는 말이겠다.

문득 세상 부부의 영욕(榮辱, 영예와 치욕)을 원수같이 배척하여 말끝마다 말하기를,

⇒ 하지만 혜빙은 결혼을 싫어했다는 거다.

"여자는 죄인이라. 온갖 일을 마음대로 못 하여 남의 절제를 받나니, 남아(男兒) 못 될지면 인륜을 그침[→ 결혼을 하지 않음]이 옳으리라."

⇒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여성의 삶을 답답하고 한심하게 여겼으며,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혜빙. 남녀차별의 관습을 거부하는 여성이다.

하며 모든 형들의 구차함[→ 관습에 얽매여 사는 언니들의 처지가 답답함]을 비웃으니, 형들은 활발타 조롱하고[→ 언니들은 혜빙을 여성답지 못하다고 놀리고] 부모는 그 마음을 괴이히 여기더라.[→ 부모 입장에서는 혜빙이 남다른 생각을 가진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겠다.]

영 공이 방 한림을 크게 사랑하매 막내딸을 위하여 구혼함을 지극히 하니,[→ 방 한림에게 막내딸과 결혼하라고 계속 권했나 보다.] 한림이 괴로움이 극하나[→ 여자임을 속이고 있는 처지에 이런 상황을 맞으니 괴로울 수밖에 없겠다.] 또한 헤아리매, 이미 남자로 행세하여 종신(終身, 일생을 마침)코자 하매 처자(妻子)를 두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의혹하리니, 차라리 아름다운 숙녀를 얻어 평생의 지기(知己. 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로 삼는 것이 마땅하나,[→ 방 한림은 남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차마 사람을 속여 인륜을 그르침이 어렵고,[→ 상대방을 속여서 결혼함으로써 상대방이 보통의 부인들처럼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양심상 차마 못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어리석은 상대를 만나면 자기의 정체를 누설할까[→ 결혼 상대 때문에 자기가 여자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하는 염려도 되어서] 천 번 만 번을 생각하나, 계교 없어 다만 공손하게 사양하더라.

(중략)

⇒ 중략된 부분에는, 영 공의 권유로 영 소저를 보게 된 방 한림이 영 소저에게 반하고, 영 소저 또한 방 한림이 여자임을 눈치채고도 호감을 느껴 결국 둘이 결혼하게 된다.

 # 토막2 : 방 한림의 비밀을 알고 서로 지기가 되다

명일(明日, 다음날) 신부 폐백을 마치고 사당을 찾아 한림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술잔을 바칠새, 한림이 옛일을 생각하고 슬픔이 섞여 일어나매[→ 자신이 성장한 모습을 못 보고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니 슬픈 것이다.] 눈물이 연꽃 같은 두 뺨에 젖으니, 소저 또한 감동하여 슬퍼 눈물을 흘리더라. 소저의 침소를 정전(正殿) 해월각에 정하니 으뜸 큰 집이라. 붉은 난간과 옥으로 된 난간에 비단 바른 창과 하얗게 꾸민 벽이 인세(人世, 인간의 세상) 같지 않더라.

이날 밤에 한림이 침소에 이르니, 영 소저는 규방의 여자 가운데 세상 이치를 꿰뚫어 아는 여자라,[→ 비록 집에만 있던 여성이지만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다.] 이미 한림이 여자인 줄 알고 이에 별 같은 눈을 숙이고 자리를 옮겨 앉아 왈,

"첩이 상공께 한번 고할 말씀이 있으니 용서하소서."

한림이 저가 자기 알아봄이 이 같음을 보고 탄식하며 왈,[→ 영 소저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보았음을 한림도 눈치챈 거다.]

"무슨 말을 나에게 하고자 하느뇨? 한번 듣고자 하나이다."

소저 옷깃을 여미고 답하여 왈,

"소첩이 만일 한림을 알지 못한즉[→ 방 한림이 여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찌 말이 당돌하기에 미치리잇고?[→ 어찌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윽히 헤아리매, 한림이 일월(日月)을 속이며 세상을 기망(= 남을 속여 넘김)하여 음양(陰陽)을 바꿔 입으심[→ 남성과 여성의 구별을 어기고 남장을 함]을 아나니,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첩이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저버리지 아니리이다."

⇒ 혜빙은 비밀 유지를 약속하며 방 한림이 남장을 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림이 이미 이같이 맑은 결단이 있음에 뜻을 굽혀, 한편으로 슬프고 또 부끄러워, 한동안 옥 같은 얼굴에 눈물이 흘러 능히 기운을 수습치 못하다 한참 후에야 팔을 들어 사례 왈,

"나는 근본이 그대의 의심과 같은지라[→ 여자인지라]. 하늘의 지중한 죄벌을 얻어 팔 세에 부모님을 잃고, 혈혈한(=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일신이 시골에 친척조차 드물어 의탁할 사람이 없는지라, 어찌할 방법이 없어 스스로 이런 모습으로 속절없이 세월을 보내어 이미 십 세 되매, 어리석은 기운이 더욱 그칠 줄을 몰라 이 지경에 이르렀더니[→ 자신의 남장에 대해 '어리석은'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종의 미안함의 표현이다. 사실 방 한림은 자신의 남장에 대해 소신이 있으나, 막상 이를 눈치챈 영 소저에게 해명하는 상황에서는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것이다.], 금일 그대에게 한눈에 알아봄을 당하여 감히 다시 속이지 못하겠노라. 나는 이미 길을 그릇 들었고, 바라는 바를 위하여 잘못된 길을 택하는 마음이 있어 부부 사이의 즐거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왔거니와[→ 이미 남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혼은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영 공의 강권하심을 거부하지 못하여 소저의 인륜을 어지럽혔으니, 부끄러워 낯을 들 곳이 없으나 다만 나의 정체는 누설하면 안 될 것이니 그대의 침묵함을 바라노라."

⇒ 방 한림이 영 소저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고 비밀을 지켜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다.

영 소저가 기뻐하며 왈,

"첩이 이미 그대를 처음에 볼 때 쾌히 알아보았나니 이제는 그대와 한가지로 일생을 지내어도 족히 처자의 도를 잃지 아니하려니와,[→ 한림과 함께 살며 아내로서의 도리를 지키겠다는 말이다.] 다만 그대가 나이 많도록 수염이 나지 않는다면 어느 사람이 모르리오? 그때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가 되면 능히 어찌하리잇가?"[→ 나이가 들었을 때 여자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을 대비책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

한림이 슬프게 탄식하며 왈,

"만사 되어 감을 바라나니[→ 그때그때 일이 되어가는 대로 대처할 것이라는 말이겠다.] 족히 염려치 아니하나, 소저의 일생을 생각하매 위하는 마음이 끝이 없거니와,[→ 다른 여자들처럼 남자와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영 소저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게 됐으니 미안하고 안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미 나를 위하여 지기가 되어 일생을 한가지로 맞고자 한다면 형제의 의를 맺어 명칭을 어지럽히지 마사이다."

⇒ 영 소저가 '처자의 도'를 지키겠다고 말하자, 방 한림은 친구가 되어 형제처럼 살아가자고 제안한다.

영 소저가 좋아하지 않으며 왈,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차한즉[→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누설이 되어 부모님이 알게 되면 좋지 않으리니, 다만 부부의 예를 차릴 따름이니 어찌 주저함이 있으리오?"

⇒ 하지만 영 소저는 부모가 알게 될 것을 염려하며 비밀 유지를 위해서는 부부의 예를 차려야 한다고 말한다. 역시 주도면밀하다.

한림이 기뻐 허락하고 이에 팔뚝 위의 주표(=꾀꼬리의 피로 문신하여 나타내던 처녀의 징표)를 소저에게 뵈니, 소저 냉소하고 왈,

"이를 주변 사람이 본즉 어찌하려 하나뇨?"[→ 누가 알면 어쩌려고 그러느냐는 말이겠다.]

한림 왈,

"내가 스스로 깊이 감추었으니 뉘 능히 알 자 있으리오?"

두 사람이 다 웃고 또한 다행히 지기를 얻어 서로 자신을 잃지 않음을 기뻐하더라[→ 두 사람 모두 결혼 전 자신이 살아오고 생각하던 대로의 삶을 결혼 후에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어 기쁜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이 화락하여, 한림이 조정에 갔다 오면 내당에서 종일토록 보내고 외당에 손님을 모으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고요하고 단정함을 더욱 칭찬하더라.

⇒ 방 한림과 영 소저는 부부로 가장한 자신들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외부인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사이좋게 지내며 살아가는데 사정을 모르는 남들은 부부가 조용하고 단정하게 산다고 칭찬했다는 것이다.

이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35~38] 과학 : 천체들 간에 작용하는 중력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과학 - 천체 운동 - 중력
중력, 혜성, 핵, 질량, 기조력, 로슈 한계, 쌍성계, 주성, 반성, 로슈 엽, 라그랑주 점, 초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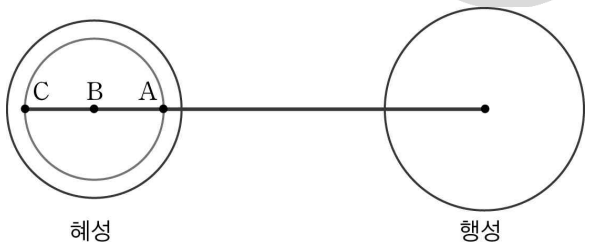
*** 지문 분석**

 # 문단1 : 천체들 간에 작용하는 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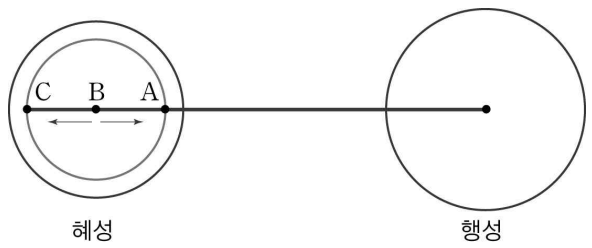
1) 우주 공간에서 천체들 간에 작용하는 **중력**은 다양한 천체 현상을 유발한다.
   ⇒ '중력'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문단2에 제시되겠지만, 중력은 서로 다른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질량을 갖는 천체들 사이에도 당연히 중력이 작용하겠다.
2) 긴 꼬리를 끌고 타원이나 포물선 궤도 등을 그리며 운행하는 작은 천체인 **혜성**이 목성처럼 **질량**이 큰 행성 주위를 지날 때, 행성의 중력에 의해 끌어당겨져 충돌하는 것이 그 예 중 하나이다.
   ⇒ 영화에서도 봤던 내용이다. 지구와 혜성이 충돌한다는 과학자의 충고를 모든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주인공 혼자만 충고를 듣고 막아 낸다는……. 혜성과 행성의 충돌 역시 천체들 간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이라는 거다.
3) 그런데 혜성은 때때로 행성과 충돌하기 직전에 산산조각 나 버리기도 한다. 이는 행성의 중력이 혜성에 **기조력**을 유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목] 천체들 간에 작용하는 중력이 천체 현상을 유발하는데, ①혜성과 행성의 충돌, ②혜성의 파괴 두 가지가 제시되었다.
   ⇒ 혜성은 행성과 충돌하기 '직전'에 파괴된다고?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행성과 충돌하기도 전에 혜성이 파괴되는 이유는 '기조력' 때문이란다. '기조력'은 뭐고, 또 어떻게 작용해서 혜성을 산산조각 내 버리는 걸까?

 # 문단2 : 기조력

1) 가스로 뒤덮여 있는 혜성에서 중심에 있는 **핵**은 얼음과 먼지가 중력에 의해 단단히 뭉쳐져 있는 구의 형태를 띠는데, 혜성의 핵에서 각 지점에 미치는 행성의 중력은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해당 지점[→ 혜성 핵의 각 지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 혜성의 중력이 얼음과 먼지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구의 형태를 띠는데, 행성 역시 중력에 의해 혜성을 끌어당긴다. 그런데 행성의 중력은 혜성의 핵 각 지점마다 미치는 힘의 크기가 다르단다.
2) [혜성의] 핵의 표면에서 행성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A, 핵의 중심부를 B, 핵의 표면에서 행성에 가장 먼 지점을 C라 할 때, A~C는 행성의 중심을 향한 일직선상에 놓인다.
   ⇒ 제대로 읽었다면 머릿속에 대강 이런 그림이 떠올랐겠다.



3) 그러면 [혜성 핵에 작용하는 행성의] 중력이 A에 가장 강하게 작용하고 C에 가장 약하게 작용하여, ……
   ⇒ 1)의 설명에 의하면 '혜성의 핵에서 각 지점에 미치는 행성의 중력은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해당 지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행성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A에 중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 거꾸로 C는 행성과 거리가 가장 먼 지점이므로 중력이 가장 약하게 작용한다.
4) …… 그 차이에 해당하는 힘인 기조력이 유발된다.
   ⇒ 'A에 작용하는 행성의 중력 - C에 작용하는 행성의 중력'이 바로 기조력이다.
5) 이[→ 기조력]로 인해 B에는 A쪽인 행성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면서 동시에 C쪽인 행성 중심의 반대 방향으로도 중력이 작용하는 효과가 나타나서, 핵이 양쪽 방향에서 잡아당겨지는 양상이 벌어진다.
   [Rew] 문단1-3)에서 말한 '혜성의 핵이 행성과 충돌하기 직전에 파괴'되는 이유다.
   ⇒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행성이 유발하는 기조력으로 핵을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불안정해지겠다. 기조력이 더 커지면 어느 순간 혜성은 폭발할 거다.



 # 문단3 : 로슈 한계

1) 행성이 핵의 양 끝 지점에 유발하는 기조력의 크기는 행성의 질량과 혜성의 질량, 그리고 혜성 핵의 반지름을 모두 곱한 값에 비례하며, 행성의 중심과 핵의 중심 사이의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 기조력이 중력으로부터 유발되므로 행성과 혜성의 질량이 클수록, 혜성 핵의 반지름이 클수록 기조력의 크기도 커진다. 행성이 혜성의 핵에 미치는 중력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아지니까 기조력의 크기 역시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아질게다. 정리해 보자.

(행성의 질량 × 혜성의 질량 × 혜성 핵의 반지름)↑ ⇨ 기조력의 크기↑
(행성의 중심과 혜성 핵의 중심 사이의 거리)^3↓ ⇨ 기조력의 크기↑

2) 그래서 혜성이 행성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혜성의 핵에 작용하는 행성의 중력이 커져서] 혜성이 받는 기조력이 커지며, 그 크기가 충분히 커질 때 혜성의 핵은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파괴될 수 있다.
   ⇒ 혜성이 행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 행성의 중력이 커진다. 이에 따라 기조력은 더더더 커져서 핵은 견디지 못하고 어느 순간 파괴된다.
3) 이때[→ 혜성이 행성에 다가갈수록 기조력이 커질 때] 혜성이 파괴되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행성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상의 한계를 **로슈 한계**라고 한다.
   ⇒ '로슈 한계'는 혜성이 파괴되지 않은 채 좁힐 수 있는 행성과의 최단 거리다. 그렇다면 '로슈 한계' 지점은 혜성의 핵 표면에 작용하는 혜성의 중력과 기조력이 거의 같은 상태가 되겠다. 이 균형이 깨져서 기조력이 더 커지면 혜성의 핵은 파괴되기 때문이다.
4) 로슈 한계는 행성을 중심으로 한 원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 반지름은 행성의 질량을 혜성의 질량으로 나눈 값에 비례하고, 혜성 핵의 반지름에도 비례한다.
   ⇒ 로슈 한계의 반지름은 혜성이 파괴되지 않는 '거리상의 한계'이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left(\frac{\text{행성의 질량}}{\text{혜성의 질량}}\right)\uparrow \Rightarrow \text{로슈 한계의 반지름}\uparrow$$
혜성 핵의 반지름↑ ⇨ 로슈 한계의 반지름↑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참고] 위의 비례, 반비례 관계가 왜 성립하는지 궁금한 학생들은 다음을 읽어 보면 된다. 궁금하지 않는 학생들은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겠다.

1) 행성의 질량과 로슈 한계의 반지름은 왜 비례할까?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기조력도 커진다. 그런데 혜성의 중력은 이미 고정된 값이다. 로슈 한계는 혜성의 중력과 기조력이 거의 같아지는 거리이므로, 기조력이 커진 효과를 상쇄하려면 '행성과 혜성 사이의 거리'인 로슈 한계의 반지름이 증가해야 한다.

2) 혜성의 질량과 로슈 한계의 반지름은 왜 반비례할까?
혜성의 질량이 커지면 혜성의 중력도 커진다. 혜성의 중력이 커지면 혜성이 파괴되지 않고 행성에 다가갈 수 있는 거리는 짧아지게 된다. 즉, 로슈 한계의 반지름은 감소한다. 반대로 혜성의 질량이 작아지면 로슈 한계의 반지름은 증가하게 된다.

3) 혜성 핵의 반지름과 로슈 한계의 반지름은 왜 비례할까?
혜성 핵의 반지름이 커지면 혜성의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작아진다. 이에 따라 기조력이 작아져야 한다. 기조력이 작아지기 위해서는 행성과 혜성 사이의 거리인 로슈 한계의 반지름이 증가해야 한다.

 # 문단4 : 쌍성계의 로슈 한계

1) 로슈 한계의 개념은 '쌍성계'처럼 두 별이 서로 인접하여 공존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이번에는 '쌍성계'다. 혜성과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기조력과 로슈 한계의 개념이 '쌍성계'에도 적용되나 보다. 그런데 쌍성계는 뭘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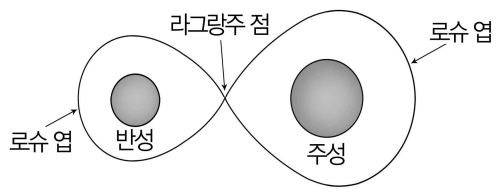
2) **쌍성계**는 두 별이 서로의 중력에 속박되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에 대해 공전하는 천체로, ……
[맥락 짚기] 천체들 간에 작용하는 중력이 유발하는 천체 현상 ①혜성과 행성의 충돌, ②혜성의 파괴에 이어 ③'쌍성계'가 제시되고 있다.
⇒ 쌍성계의 정의다. 마찬가지로 '중력'으로 인해 더 이상 멀어지지도 않고, 더 이상 가까워지지도 않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공전한다는 얘기다. 이때 A 별은 B 별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B 별은 A 별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3) …… 질량이 큰 별을 **주성**, 작은 별을 **반성**이라 한다. 쌍성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상대의 로슈 한계 바깥쪽에 위치해야 한다.
⇒ 두 별 중에 질량이 큰 놈은 중심을 뜻하는 '주(主)' 자를 써서 주성, 질량이 작은 놈은 동반자를 뜻하는 '반(伴)' 자를 써서 반성이라 한다. 중요한 점은 두 별이 충돌하지 않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면 로슈 한계 바깥쪽에 있어야 한단다.

 # 문단5 : 라그랑주 점

1) 한편 주성과 반성 주위에 그 각각의 중력이 비교적 강하게 미치는 둥근 공간을 **로슈 엽**이라 한다.
⇒ 질량이 작은 놈은 로슈 엽도 작을 테고, 질량이 큰 놈은 상대적으로 로슈 엽도 크겠다.

2) 쌍성계 부근에 위치한 물체는 주성과 반성 모두의 중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로슈 엽의 내부에 위치하는 물체는 해당 로슈 엽의 중심에 위치한 별의 중력에 속박되어 해당 별로 끌려간다.
⇒ 그림 덕분에 좀 쉽게 이해가 됐다. 로슈 엽은 중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공간이니, 로슈 엽 내부에 있는 물체는 반성이나 주성에 의한 중력의 영향을 받을 게다.



3) 두 로슈 엽은 한 지점에서 접하는데, 이 지점에 위치하는 물체는 주성과 반성으로부터 동일한 크기의 중력을 받아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중력이 미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여러 천체로부터 받는 중력들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을 **'라그랑주 점'**이라고 한다.
⇒ '라그랑주 점'은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크기의 중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치 중력이 없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지점이다.

 # 문단6 : 초신성

1) 쌍성계의 주성이 진화하는 과정 중에는 주성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외부로 팽창하면서 부피가 매우 커지는 경우가 있다.
⇒ 주성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외부로 팽창할 때 '부피'가 커지는 것이지 '질량'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무한히 팽창할 수는 없을 텐데 ……

2) 이 과정에서 주성의 물질들이 자신의 로슈 엽을 가득 채우면 그 물질들 중 일부가 라그랑주 점을 통해 반성의 로슈 엽 내부로 흘러들어가 반성 주위에 축적된다.
⇒ 라그랑주 점은 중력이 미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 지점을 통해 주성의 물질이 반성의 로슈 엽 내부로 흘러들어 갈 수 있나 보다. 이렇게 반성 주위에 계속 물질이 축적되면 ……

3) 이로 인해[→ 반성 주위에 축적된 물질로 인해] 반성 주위의 압력이 일정 크기 이상으로 커지면 폭발을 일으키며 밝게 빛나는데, 이 현상은 우리에게 **초신성**으로 관측된다.
⇒ …… 더 이상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이 일어난다. 그게 초신성이란다.

[참고] '초신성'이란 어떤 항성이 진화 마지막 단계에서 폭발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매우 밝게 빛나는 특별한 별이다. 항성은 종류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데, 초신성 폭발은 그중의 하나이다. 초신성 폭발은 이렇게 서서히 또는 갑작스레 밝아지다가 최대로 밝은 상태인 최대 광도를 보인 뒤 그 빛이 사그라지는 모양을 띤다. 우리 은하에 있는 초신성 잔해와 외부 은하에서 나타나는 초신성의 빈도로부터 은하 한 개당 대략 100년에 한번 꼴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초신성을 이용한 연구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43~45] 현대소설 : 문순태, 「무서운 징 소리」

＊ 수록 지문 평가

문순태의 「징 소리」는 근대화의 물결 속에 해체되어 가는 삶의 양상을 그린 단편 소설로, 이후 발표된 「저녁 징 소리」, 「말하는 징 소리」를 포함해 총 여섯 편의 독립된 단편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기적 구조를 갖춘 연작이다. 그중 하나가 수록된 「무서운 징 소리」이다. 작품 배경이 되는 지역의 특색과 주인공의 개성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섞여 있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수몰된 고향 방울재를 떠난 허칠복은 징채잡이다. 칠복의 잃어버린 징을 찾아 주겠다는 맹 계장은 대신 부탁을 들어달라며 칠복을 맹 계장의 고향으로 데려간다. 하지만 그 고향도 평화로운 농촌은 아니다.

＊ 수록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징채잡이 허칠복은 고향 방울재가 수몰된 이후 여기저기를 전전하다가, 회사에서 만난 맹 계장의 권유에 따라 딸 금순이와 함께 맹 계장의 고향을 찾아가게 된다.

#토막1 : 맹 계장의 고향에 온 칠복

칠복은 여러 차례 반복해 가며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콧구멍을 벌룸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새콤하고 들척지근한 흙의 냄새가 쩌릿쩌릿 핏줄 속으로 파고들어 왔다. 그는 흙냄새만 맡고도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었다. 신작로 가의 풀과 비탈의 나무 냄새도 맡았다. 엷은 초록색 꽃이 피는 갈퀴덩굴, 개비름이며, 통꽃이 피는 초롱꽃풀, 바랭이, 엉겅퀴, 쇠무릎, 강아지풀, 둥글레, 된장에 무쳐 먹는 옥매듭풀까지도 냄새로 죄 알 수가 있었다.

⇒ 흙냄새만 맡아도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농사일에 오랜 경험이 있는 칠복이 오랜만에 흙이 있는 농촌에 왔다.

들에서 고향 방울재 냄새도 났다.

햇살이 숨을 죽이는 하늘의 냄새까지도 맡았다.

칠복은 쩌릿쩌릿 그의 핏줄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많은 냄새에 취했다. 첨벙첨벙 논으로 뛰어들어 가고 싶었다. 온몸에 흙으로 자멱질(＝물속에서 팔다리를 놀리며 떴다 잠겼다 하는 짓)을 하고 싶었다.

⇒ 간만에 농촌에 오게 되자 칠복은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고향 방울재도 떠올려 본다.

칠복은 문득, 순덕이한테 장가를 든 지 이 년 후에 머슴살이 새경(＝머슴이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주인에게서 받는 돈이나 물건)을 모아서, 처음으로 땅을 장만했을 때의 감격이 살아난 듯싶었다. 물길이 멀어 가뭄만 되면 농사를 망치기 일쑤인 일곱 되지기(＝논밭 넓이의 단위. 마지기의 십분의 일) 칼배미 논의 흙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었다.[→ '배미'는 논두렁으로 둘러싸인 논 하나하나의 구역이다. 칼배미라고 했으니 칼처럼 길쭉한 모양의 논이겠다.] 볼에 비벼 본 칼배미의 흙은 아내 순덕이의 살결만큼이나 부드럽고 구수한 호박꽃 향기가 풍겼다.

⇒ 칠복은 한 마지기도 안 되는 좁은 넓이에 모양도 반듯하지 않은 논이지만, 처음으로 가지게 된 자기 땅이라서 흙을 볼에도 비벼 보고 흙의 향기까지도 좋았던 일들이 떠올랐다.

#토막2 : 농사를 짓지 않는 남창리

그런데 이상하게도 들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고사리도 꺾을 때 꺾고, 술은 필 때 걸러야 한다[→ 농촌 마을의 격언이다. 때를 놓치지 말고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겠다. 술이 발효해서 익어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괴다'라고 한다. 술을 담아 발효시켜 거품이 일면 제때에 걸러야 맛좋은 술이 만들어진다는 거다.]는 푼수(＝상태나 형편)로, 보리 베고 모를 내는 하지(夏至) 전후에는 부지깽이도 덤벙인다[→ 하지 무렵에는 해야 할 농사일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바쁘다는 의미다.]는데, 들에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된 영문인지 몰랐다.

논마다 베지 않은 보리 모개(＝곡식의 이삭이 달린 부분)가 시들시들 고스러지고 보리를 심지 않은 무논[水畓]은 아직 써레(＝갈아 놓은 논의 바닥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도 들어가지 않았다.

⇒ 수확했어야 하는 보리를 수확하지 않아 보리 이삭이 시들고 있고, 써레로 갈아서 모내기를 준비했어야 하는 논도 갈려 있지 않았다. 즉 이 시기에 해 놓아야 하는 농사일을 하나도 해 놓지 않은 상태라는 말이겠다.

늦은 밥 먹고 파장(罷場) 가려고 그러는지 원, 날아가는 새라도 불러다 일을 시키고 싶을 정도로 한창 바쁜 철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이유를 알 턱이 없는 칠복은 그저 마음이 답답하기만 했다.

⇒ 원래 시골 장은 대부분 거리가 먼 탓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 하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 밥을 늦게 먹고 집을 나서면 '파장' 즉 장이 끝날 무렵에나 도착하게 된다. 그러니 칠복은 이렇게 게으름을 부리다 농사일을 망치게 될 까봐 염려하고 있는 게다.

맹 계장을 따라 밋밋한 상수리나무 숲 모퉁이를 지나자 칠복은 발걸음을 늦추며 손바닥으로 눈썹차양을 만들어, 미루나무들 가지 사이에 시선을 팽팽하게 던졌다.

그의 눈길이 닿는 곳에 바다처럼 넓은 방죽(＝둑으로 둘러막은 못)이, 숨을 거두려는 마지막 햇살[→ 해가 지기 전의 햇빛]을 담뿍 받고 있었고, 고무보트를 탄 수많은 사람들이 수면에서 물장구치듯 꿈지럭거렸다.

"아니, 이 바쁜 통에 무슨 지랄들이랍니까요."

칠복이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다.

"돈벌이들을 하는 겁니다."

"돈벌이라뇨?"

"순채[水草][→ 물 위에 떠서 자라는 수초. 그 떡잎을 뜯어서 먹는다.]를 뜯으면 하루 만 원 벌이가 된다우."

"월래 월래!"[→ '얼래'의 사투리. 놀랐을 때 나오는 감탄사이다.]

칠복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눈으로 큰 호수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순채의 떡잎을 뜯는 마을 사람들을 질러보았다.

⇒ 천상 농사꾼인 칠복은, 한창 농사일로 바빠야 할 모내기철에 농사를 짓는 대신 순채를 채취하여 돈벌이를 하는 남창리 사람들의 행동에 기막혀한다.

(중략)

⇒ 중략 부분에는 마을 사람들이 순채 채취를 하게 된 경위가 제시되어 있다.

[남창리에는 순채 가공 공장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일본에서 맥주 안주로 인기가 많은 순채를 솥에 넣고 쪄서 수출한다. 이 순채 가공 공장의 사장인 박천도가 비싼 값으로 순채를 매입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농사일을 팽개치고 순채 채취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박천도는 남창리 농업협동조합의 장을 맡아 횡령을 한 것이 들통나 마을에서 쫓겨났던 인물이다. 그러한 인물이 갑자기 다시 남창리에 나타나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순채 포기 각서를 받는다. 방죽에 돋아난 순채는 마을 공공의 재산인데, 자신이 순채를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낸 것이다. 또 박천도는 순채 포기 각서를 낸 가구에 대해서만 채취한 순채를 매입하겠다고 한다. 마을 청년들 일부는 박천도가 이처럼 돈을 주어 가며 순채를 포기시키고, 마을 사람들이 채집한 순채를 매입하려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마을 청년들은 순채 채취로 돈벌이를 할 수 있다면 박천도만 좋은 일 시킬 것이 아니라 마을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박천도가 돈을 버는 것이 배가 아파 그러냐며 되려 마을 사람들로부터 면박을 듣는다. 결국 박천도는 본격적으로 순채 매입을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시작하고, 마을 사람들 대다수는 농사를 포기하고 순채 채취에 몰두한다.]

#토막3 : 순채로 인해 달라진 남창리 사람들

지난 삼 년 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돈을 번 남창리 사람들은, 전기밥솥 텔레비전은 옛날이야기이고, 전축이며 세탁기, 냉장고까지 사 들였고, 집집마다 주택 개량이다 뭐다 하며 이 층으로 새 집들을 짓고 몸 사치를 하는 등 도시 사람들 부럽지 않게 문화생활을 하였다.

벌이가 좋은 만큼 농토는 그대로 버려진 채였다. 처음 일 년은 그대로 폐농(= 농사를 그만둠)을 하기가 싫었던지 이웃 마을에 뭇갈림[→ 수확한 벼를 반씩 나누기로 하고 소작을 주는 일]을 내놓았었는데, 그다음 해부터는 아예 씨나락(= 볍씨) 담그는 것조차 포기하고, 논밭을 그대로 묵혀 버렸다.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곡식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채소, 양념까지도 장에서 사다 먹었다.

⇒ 순채 채취에 열을 올리면서 남창리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게 되었다. 농사는 지어 보았자 비료 값이며 농약 값이며 물세 등을 빼고 나면 인건비도 남지 않는데, 순채는 노동력만 들이면 제법 큰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창리 86호 중에서 당초 순채 채취 포기 각서에 도장 찍기를 거부했던 18호만이 돈을 벌지 않고 농사를 지었다. 18호 가운데서도 순채 채취가 큰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늦게 알아차리고 박천도 사장한테 알랑거리며 뒤늦게나마 채취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으나, 68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는 바람에, 속만 보이고 헐값에 농토를 처분하고 도회지로 나가 버린 집이 여남은 호가 넘었다.

⇒ 순채 채취로 돈을 벌게 되자 이에 참여한 가구와 참여하지 못한 가구 사이에 소득 격차가 생겼다. 또한, 이미 참여해 있는 가구가 뒤늦게 참여하려는 가구를 배척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농촌 공동체가 분열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장산군 안에서 소득이 가장 높아 신문에까지 난 남창리는 해마다 이농자(= 농사를 그만두고 농촌을 떠나는 사람)가 늘어났다. 처음에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아 순채 채취를 못 하게 된 사람들은, 박천도 사장의 부당성에 여기저기 진정서를 내고 문제를 삼으려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눈꼴사나워(= 보기에 아니꼬워 비위에 거슬리게 미워) 못 살겠다며 고향을 떠나 버리기도 하였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일손이 부족한 탓도 있었다. 본디 시골의 농사란 여러 집이 힘을 합해 품앗이로 해야만 수월한데, 모두들 농토는 묵혀 두고 순채 뜯는 일에만 정신이 홀려 있으니, 채취를 않는 집은 누구와 함께 농사를 짓겠는가 말이다.

"내버려 두면 이 마을은 망허고 말겠구먼요. 이것은 마을에 징이 없는 탓입니다요. 마을에 혼이 없는 거라요."

⇒ 남창리의 상황을 알고 위기감을 느낀 칠복. 그는 모든 것이 '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에게 '징'은 마을의 혼, 즉 전통과 미풍양속을 지키려는 마음 자세를 의미한다.

칠복이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등에 업힌 금순이가 벌써 잠이 들었는지 숨소리가 쌔근거렸다.

"채취도 올해로 마지막이니 내버려 둬도 내년부텀 다시 농사를 짓겠지요."

"아닙니다요. 올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영 틀립니다요."

"무슨 말이우?"

"저 사람들 한번 돈맛을 봤는디 다시 농사를 짓겄어요? 중 고기 맛 보면 고기 안 묵고는 못 참는 이치와 같지요. 저 사람들 올 농사[→ 올해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고향을 떠나게 될 거요."

이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